

투데이 칼럼

달인

누구도 미래의 삶을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나의 경우 36년 경찰이라는 전직도 그러했지만, 대형 관광버스 무사고 경력 9년차 기사는 더욱 기상천외하다. 그 시작은 퇴직 3년 전부터 계획했던 동생과의 미전역 자동차여행에서 시작되었다.

여행 때 혹시 RV 렌트 운전을 대비해서 퇴직 전 대형면허를 취득했다. 그렇게 해서 퇴직한 이듬해 동생과 3개월 미국여행을 다녀 왔다. 그 후에 아내 지인의 권유로 알바생각으로 25인승 통학버스 기사를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6개월 후부터 대형버스로 전환, 전국 곳곳에 인력수송을 하게 되었다. 초기 3개월여 동안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가벼운 접촉사고, 자파사고가 심수회, 내돈으로 처리한 비용만 총 250여만원이 들었는데 엄청 스트레스도 있었다.

지금은 자가용 운전만큼이나



홍민기
수필가

편안하다. 때때로 주차된 내 차를 좀 떨어져 보면서 내가 이 큰차를 손쉽게 끌고 다니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동료기사들은 공직했던 나의 버스운행에 경의를 표하는 사람도 있다.

스케줄대로 안전운행하고 차량만 관리하면 되니 사고를 염려하는 일반사람 생각과 달리 상사 갑질, 눈치 볼 것 없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키만 던지면 되기에 홀가분 하다.

2005년부터 SBS에서 방영하는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있다. '얼마나 오래, 숙달되었으면 저

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런데 이런 달인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쉽게, 빠르게, 실수없이 할지에 대한 나름의 연구와 노하우가 있었다. 달인을 생각하니 문득 오래 전 현직 때 관리하던 검문소 직원과 의경의 활동이 생각난다.

그들은 매달 수십~백명 이상의 수배범을 잡았다. 어떻게 그 실적을 거둘 수 있는지 물었더니 "이젠 수배자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인간

거짓말탐지기' 수준이 된 것이 다.

사람들 나이가 60을 넘으면 나름 '삶의 달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인관계, 사회생활, 직장이나 사업, 개인이나 가계 경제를 꾸려가는 것, 심지어 배우자와 결혼관계와 사랑을 이어가는 것까지.

생활의 달인이 그러하듯이 그저 일하고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 아닌 배움과 연구, 숙달의 노력이 함께 할 때 '달인'이 되어가리라라는 생각이 든다.

삶은 끊임없는 배움과 연습의 연속이다.

이 노력은 지루할 수 있는 때 너리즘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향한 변화를 도모하고 '달인'을 베이스로 만든다.

이젠 제법 중참의 단계로 향하는 나의 힘찬 질주가 늘 안전을 경계하며, 즐거움과 그로 인한 진절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보람으로 여기며 더욱 달인을 꿈꾸어 본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최루 가스 속 성조기 흔드는 美 시위 참가자



9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부 산타애나 연방 청사 앞에서 한 시위자가 경찰이 쏜 최루 가스 속에서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IDF 대피령에 자발리아 떠난 팔레스타인 난민들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서 대피한 팔레스타인 피란민들이 9일(현지 시간) 가자시티에 도착하고 있다. 이스라엘군(IDF)은 지난 7일 공습을 앞두고 자발리아 난민 캠프 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전환사채의 문제

증권시장에서 유상증자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전환사채'다. 처음엔 채권이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채권이다.

의료기구 업체 세종메디칼은 지난해 3월 코스닥에서 거래정지됐다.

자본금 55억 원 회사에 결손금이 9백억 원 넘게 쌓였기 때문이다.

거래정지 석 달 뒤, 회사는 지금 조달을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기존 전환사채를 새 전환사채로 갚겠다는 거였는데,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가격'이 황당했다.

기존 전환사채는 주당 2,344원에 바꾸는 조건이었지만, 새 전환사채는 주당 100원이었다. 회사가 받은 투자금은 그대로인데, 찍어줘야 하는 주식 수는 23배가 된 것이다.

전환사채 횡수도 많고, 그 양·액수 자체도 굉장히 컸다. '세종메디칼'은 최근 3년 전환사채를 9차례 발행했다. 코스

닥 상장사 중 세 번째로 많다. 너무 잦은 전환사채로 이들 회사 주식 수는 많게는 100% 넘게 늘었다.

그만큼 기존 주주들은 앞서서 손해를 봤지만, 배당 등은 전혀 없었다. 전환사채는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쉽다. 경우에 따라 주주총회를 안 거처도 되고, 얼마에 주식으로 바꿔줄지 등 핵심 내용도 회사가 정할 수 있어 주가 조작 통로로도 악용된다.

배우 권 모 씨의 남편이 연루된 제약회사 보타바이오가 대표적이다. 전환사채를 권 씨가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2심까지 유죄다.

전환사채 발행을 투명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하다 보니, 엉뚱한 곳으로만 사용해 인식이 좋지 않다.

최근 3년 간 전환사채를 1번 이상 발행한 상장사는 5백 40여 곳으로 전체 10곳 중 2곳 꼴이다.

탄소 못 줄이면 극한 열대야

올해도 극한 열대야가 찾아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탄소 배출을 못 줄이면 2~3년마다 극한 열대야가 닥칠 거란 경고가 나왔다.

요즘 해가 거의 떨어졌는데도 한강변 공기는 후덥지근하다. 본격적인 여름은 한참 남았는데 벌써 열대야가 찾아오는 건지 시민들은 걱정한다.

지난해 열대야는 6월 강릉 지역에서 처음 관측돼, 9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9월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4.3일로, 평년 수준의 40배를 넘었다.

가을에 접어든 9월이면 밤 기온이 떨어져야 하는데, 열고기압의 이례적인 확장이 차고 건조한 공기의 유입을 막았던 것이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가 평년보다 3~4도 달아오르며 많은 수증기가 밀려든 것도 원인이었다.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런 극한 열대야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산업화 이전 대비 온난화 폭이 1.5도 수준일 경우 51년에 한 번 수준이지만, 2도 온난화에선 10년에 한 번으로 잦아진다.

2.5도 온난화에선 2~3년마다 극한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예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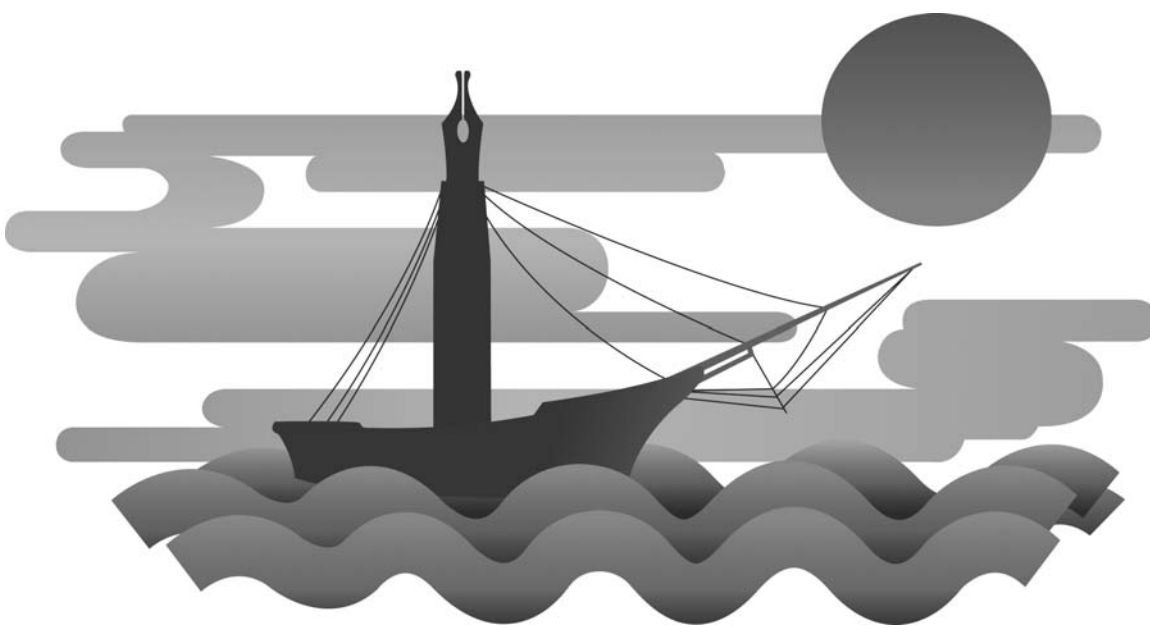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0.5도, 1도가 이 정도 차이지만 실제로 겪게 되는 입장에서선 전혀 없는 더위다. 늦더위가 찾아와서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재앙적인 수준으로 치닫기 전에 보다 적극적인 탄소 감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곧 열대야가 찾아올까 봐 너무 두렵다.

기후 재앙은 피할 수 없다. 기후 변화를 막는 일은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전체 지구인이 나서야 한다. 날씨 재앙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유엔이 적극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할 때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